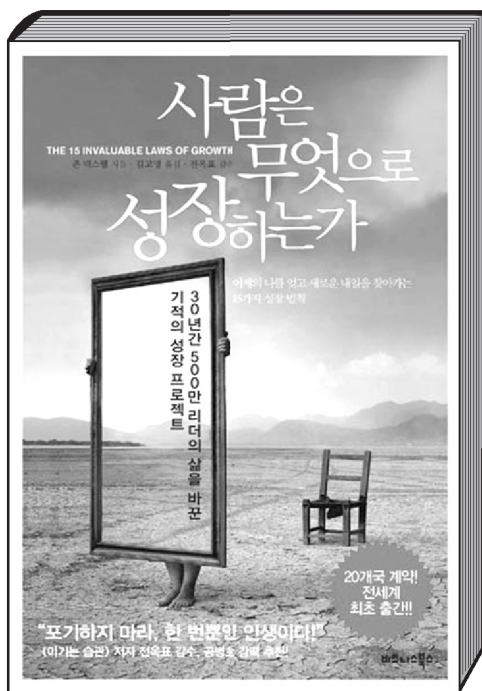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자료는 세계 베스트셀러 및 국내의 우수 도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네오넷코리아(<http://www.summary.co.kr>)에서 제공한 것이다. <편집자註>



<< 책 소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대의 한 번뿐인 인생이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구루라 칭송받는 존 맥스웰이 500만 명이 넘는 리더들을 교육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생의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5가지 '성장 불변의 법칙'을 담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비판하고 가야할 목적지에 이르는 기본 원리를 알려준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면에 잠든 잠재력과 기능성의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 저자

존 맥스웰(John Maxwell C.) -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다. 1947년 미국 미시간 주에서 태어나 오하이오 기독교대학교(Ohio Christian University)를 졸업한 후 아주사 신학대학원(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더십 컨설팅 그룹 인조이(Injoy)와 이퀼(EQUIP)을 설립하여 30년 넘게 포춘 500대 기업의 리더들과 각국 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존 맥스웰은 미국에서만 2,0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며, 아마존닷컴 10주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작가와 예술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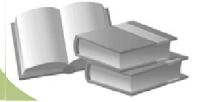
<< 차례

프롤로그

- 제1장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_ 의도성의 법칙
- 제2장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_ 인지의 법칙
- 제3장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_ 거울의 법칙
- 제4장 지금 잠시 멈춰도 인생이 더디가는 것은 아니다
_ 되돌아보기의 법칙
- 제5장 성공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1만 시간의 성실함이다
_ 끈기의 법칙
- 제6장 당신 자신을 좋은 사람들 속에 놓아두어라
_ 환경의 법칙
- 제7장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비전이 된다
_ 계획의 법칙
- 제8장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_ 고통의 법칙

- 제9장 결국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_ 사다리의 법칙
- 제10장 인생의 스트레칭을 잘하고 있는가
_ 고무줄의 법칙
- 제11장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포기했는가
_ 내려놓음의 법칙
- 제12장 인생을 신기한 것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라
_ 호기심의 법칙
- 제13장 닳고 싶은 사람, 닳고 싶은 인생을 찾았는가
_ 본보기의 법칙
- 제14장 당신 안에 감춰 둔 가능성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_ 확장의 법칙
- 제15장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_ 공헌의 법칙

에필로그



거울의 법칙 -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긍정적 자존감의 힘

어떤 남자가 점술가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 점술가는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마흔다섯 살까지는 가난하고 불행할 게야.”

남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맞춰 살아간다.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린다. 물론 주변에 온통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뿐이라면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된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저래라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장담컨대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세상도 당신을 꼭 그만큼의 가치로 평가한다. 잠재력을 발현하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거울의 법칙' 적용하기

1. 자신이 지닌 훌륭한 자질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자. 며칠, 몇 주가 걸리더라도 목록을 만들자.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날마다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자신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자. 목록을 토대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 선

택해보자. 그리고 그 단어를 목표로 삼고 가치를 높여 나가자.

2.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태도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1주일 동안 스마트폰이나 노트 등에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지 매일 기록해보자.

3.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자. 하루 혹은 1주일 동안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가치를 키우는 데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 타인을 돕거나 보람을 느낄 일을 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미 하고 있다면 더 많이 해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면 된다.

끈기의 법칙 - '성공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1만 시간의 성실함이다'

나는 지금도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격려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의욕이 생기길 바란다. 하지만 성장을 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원칙은 사람을 계속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끈기의 법칙이다. 재능이나 기회가 많고 적고를 떠나 성장의 열쇠는 끈기이다.

성장에 관한 네 가지 질문

1.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어딜 가든 목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성공하겠다는 포부도 있고 일도 적성에 맞지만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모른다. 그 이유는 일단 완벽하게 하면 그만이지 자신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미래는 성장에 달려 있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닦으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보장된다. 당신이 성장하면 시야가 트이고 기회가 늘어나며 잠재력이 향상된다.

앨버트 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은 목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에 힘을 쏟으면, 잠재력을 발현하고 가능성을 키우며 뜻 깊은 일을 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2.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성장하려면 지식, 경험, 코칭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아는가? 아직 모른다면 다음의 네 가지 제안대로 시작해보자.

- 성격 유형에 맞는 동기를 품는다 – 동기가 유발되는 방식과 그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싶다면 일단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성공을 위해 동기 부여를 한다면 자기 성격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다 – 기운을 얻고 의욕도 높이고 싶다면 일단 가치 있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 먼저 기본을 익히자. 그런 다음 그 것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실천하자. 날마다 작은 원칙을 끈기 있게 지키면 서서히 커다란 성취에 이르게 된다.

- 인내한다 –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포기하는 탓에 조금만 더 가면 큰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랫동안 땀을 흘려야

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남다르게 성장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와 끈기의 힘을 보여주었다.

-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 배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성장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줄 아는 자세다.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딛는 작은 걸음이 미래의 큰 걸음으로 이어진다.

3. ‘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한 ‘왜’가 있으면 배움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거나 맥이 빠지거나 지겹더라도 계속 전진할 힘이 생긴다. 성장과 가치관, 꿈, 목적이 하나로 이어질 경우 성장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기가 한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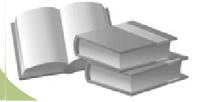
4. ‘언제’ 개선해야 하는지 아는가?

언제 개선해야 할까? 당연히 오늘, 바로 지금이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매일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원칙은 목적과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이고, 그 다리는 날마다 건너야 한다. 매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다.

‘끈기의 법칙’ 적용하기

1. 당신의 성격 유형에 맞게 동기를 부여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에 드는 성격 분류법으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자. 성격 유형을 통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단순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일일 성장 체계(daily growth system)를 만들자.

2. 어떤 일을 하든 과정을 즐길 줄 모르면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 왜 성장하고 싶은지, 성장하면 무엇이 좋은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보자.



3. 날마다 성장에 매진해야 하는 '왜'가 많을수록 끝까지 버틸 확률이 높다. 그 '왜'들을 모아 정리해보자.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생각해보자.

환경의 법칙 - '당신 자신을 좋은 사람들 속에 놓아두어라'

선택이 변화를 만든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맥클레랜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95퍼센트나 결정한다고 한다.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진실을 나름대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다니면 해를 입는다."고 했다. 찰스 '트레멘더스' 존스의 명언도 있다.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은 것이다."

짐 론도 우리는 가장 많이 어울리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된다고 역설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건강, 자세, 수입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읽는 대로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보고, 그들이 입는 대로 입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성장의 길을 혼자 걸을 수는 없다. 잠재력을 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한 사람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이다. 인생에서 다른 것은 모두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뀌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어울리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

신도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는 오로지 현재에만 일어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모습과 위치를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현재에서 일한다. 하비 파이어스톤 2세는 "오늘은 지금부터 일어날 모든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외교관을 지낸 셸리 템플 블랙은 시어머니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힘을 배웠다고 한다. 그녀의 남편인 찰스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다른 순간은요? 결혼했을 때는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지금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만 살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언제나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테레사 수녀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합시다."라고 말했다. 자신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 어제를 곱씹지 말자. 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미래도 걱정하지 말자. 미래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환경의 법칙' 적용하기

1. 가족, 친구, 동료, 상사, 멘토 등 현재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보자. 자주 어울리는 사람도 꼭 넣어야 한다. 이제 명단을 훑어보면서 자기보다 '큰'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자. 큰



인물이란 자기보다 더 재능이 있는 사람, 직업적으로 앞선 사람, 성품이 더 좋은 사람 등 무엇이든 눈여겨볼 만한 차이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대부분이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변화의 성장을 도와줄 사람들을 더 찾아야 한다.

2. 현재 환경에서 계속 자극을 받아야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난다. 자신의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그리고 다음 달 일정을 살펴보자. 매주 가장 좋은 성장 기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장에 실린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워보자.

선택이 변화를 만든다고 고무줄의 법칙 - '인생의 스트레칭을 잘하고 있는가?'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오래 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때, 한번은 참석자들이 앉은 탁자마자 고무줄을 올려놨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하면서 그 고무줄을 사용할 방법을 있는 대로 얘기해보라고 했다. 토론이 끝난 뒤 그 많은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혹시 눈치 챘는가? 고무줄을 유용하게 쓰려면 쭉 늘여야 한다. 고무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차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영웅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타자로 불리는 테드 윌리엄스다. 테드는 정말로 공을 치는 게 좋아 공을 쳤고, 무엇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분야에서 꾸준히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했다. 1950년대에 테드는 스포츠계의 또 다른 전설인 보스턴 셀틱스 농구팀의 레드 아워백 감독을 만났다. 야구와 농구를 넘나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테드가 물었다.

“그쪽 사람들은 경기가 있는 날 무얼 먹습니까?”

“알아서 뭘 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방법이 없을지 늘 그걸 고민합니다.”

훗날 레드 감독은 테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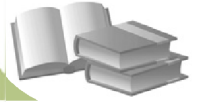
“그는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썼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선수는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린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손톱만큼이라도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선수에 관해 읽었지만 테드만큼 고무줄의 법칙을 충실히 지킨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이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성장도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다.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나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긴장이 줄어들면 생산성도 줄어든다. 이 경우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잠재력을 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놀랍게도 테드는 타자로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적이 없다. 은퇴하고 한참이 지나서도 그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타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쉬지 않고 배웠고 배운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눴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고무줄의 법칙' 적용하기

1. 인생에서 발전 가능성을 외면하고 안주해버린 영역이 있는가? 그게 무엇이든 내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 긴장을 회복하고 다시 발전해나가야 한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지금 걸음을 멈춘 곳이 어디든 불만을 동력으로 삼아 다시 걸음을 떼자.



2.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간 수준의 목표를 세우자. 목표가 너무 단기적이면 금방 달성해서 긴장을 잃어버린다. 반대로 너무 수준이 높으면 힘에 부친다는 생각에 주저앉기 십상이다. 목표는 달성하기가 너무 쉬워도, 아주 불가능해서도 안 되고 손에 닿을락 말락 한 정도가 좋다. 물론 그 수준을 정확히 맞추려면 숙련된 솜씨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이득이 될 것이다.

3.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자신이 잠재력을 모두 발휘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을 생각해보자. 꿈을 크게 꾸고 그 꿈을 평생의 목표로 삼자.

내려놓음의 법칙 -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포기했는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는 더 올라가기 위해 손에 쥔 것을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사실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모든 것' 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이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애기가 달라진다. 당신은 좋아하는 일, 후한 봉급, 안락한 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갖추게 되었을 때 당신 안의 잠재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나뉘는 갈림길을 수없이 만난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때론 인생에 어떤 것을 더하고 빼며, 또 때로는 손에 쥔 것을 내주고 다른 것을 받기도 한다. 이 세 가지를 때맞춰 절묘하게 하는 사람은 남다른 성공을 거둔다. 당신이 내려놓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내려놓기를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내려놓기는 성장의 기회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에 있다. 그런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바람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는 인생이 자신의 바람과 어긋날 때는 있어도 선택과 어긋날 때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내려놓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 내려놓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 변화를 그냥저냥 견딜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성장할 것인가?

변화를 통해 성장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된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내려놓기는 어려운 변화에 도전하게 한다

내 주위에는 '내 처지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런데 기꺼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 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주저 없이 기회를 붙잡을 때 인생이 변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놓기가 어려워진다

성공하고 나면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한 번 성공했는데 또 못하겠어?'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기술이 '저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뀔 때는 더욱더 그렇다. 지금까지 아무



리 큰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엇이든 그 값어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고 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쥐고 있는 뭔가를 내줘야 한다.

‘내려놓음의 법칙’ 적용하기

1. 당신 자신만의 내려놓기 원칙을 적어보자. 이 장에서 소개한 원칙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내려놓기를 해서 보람을 얻었던 때를 떠올려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또한 잠재력을 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자.
2.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

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찾아 적어보자. 그리고 각각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가장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자.

3. 그동안 마음이 내키지 않아 피했지만 지금 당장 내려놓고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현실에 적응해 내려놓기만 하면 없앨 수 있는 한계나 장벽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 토막 상식

은행 동맹(Banking Union)

유로존에서 개별국가를 넘어 유럽차원에서 유로존 은행전체를 감독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해주는 기구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에 취약한 금융기관과 국가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은행 연합은 2012년 5월말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담에서 헤르만 반 롬피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도입을 제안했고,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ECB)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주목을 끌어들였다. 2012년 6월 20일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내 은행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